

독서수업
지도안
학생용

초등학교 3학년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허가람 글 | 조승연 그림 | 웅진주니어 | 88쪽

독서수업 주안점

-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 기르기
-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 기르기
-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며 스스로 작품을 찾아 읽는 태도 기르기
-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 기르기

표지 탐색하기

이름 :

💡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트>를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트'를 보면, 어떤 이야기일 것 같은가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2) 책 뒷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특종! 무시무시한 땅속 괴물 출현!
갑자기 도시에 나타난 엄청 커다란 지렁이들!
지렁이들은 끔찍한 괴물을 피해 도망쳤다고 합니다.
침착한 시장님, 힘센 장군과 부하, 아는 척쟁이 박사,
최고의 광부 꾀꾀 아줌마, 어린이 기자인 잔디는
괴물 조사단을 꾸려 깊은 땅속으로 괴물을 찾아 떠났습니다.
조사단은 괴물의 정체를 밝히고 도시를 구해 낼 수 있을까요?

① 갑자기 도시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

② '괴물 조사단'을 꾸려 괴물을 찾아 떠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

어휘력 속속 키우기(1)

이름 :

💡 다음은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가) · 오웬들도 멸종하지 않은 고대 지렁이의 후손인지 몰라요.
 · 시장님은 괴물과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 또 군대가 가면 괴물을 자극할지도 모른다며 간단한 무기와 부하 딱 한 명만 데려가라고 했어요.
 · 시장님이 난감한 얼굴로 말했어요.
 ·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럽고 냄새난다고 혐오했지!”
 · “쫓쫓, 그 흉측한 걸 당장 집어넣으시오!”
- (나) · “시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을 허락해 주십시오!”
 · 시장님이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괴물은 ㉡□□□□로 소리쳤어요.
 ·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도시에 가득한 악취가 새로운 ㉢□□□□였지요.

1) (가)의 밑줄 친 낱말에 알맞은 뜻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싫어하고 미워하다.
- ② 몹시 모습이 보기에 언짢을 만큼 고약하다.
- ③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어려워 처지가 매우 딱하다.
- ④ 외부에서 작용을 주어 감각이나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게 하다.
- ⑤ 생물의 한 종류가 아주 없어지거나 생물의 한 종류를 아주 없애 버리다.

2) (나)의 ㉠~㉢에 들어갈 말의 뜻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 상대방을 견제하거나 제압하기 위해 선수를 쳐서 공격하는 일.
- ㉡ 달리 어찌할 수 없음.
- ㉢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만한 요소.

어휘력 쑥쑥 키우기(2)

이름 :

💡 다음은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가) · “()이다!” / 잔디는 칫솔을 던지고 달려 나갔어요.
 · “하지만 이렇게 큰 건 저도 처음……. 정확히 알려면 먼저 ()를…….”
 · “잠깐, 이 아이의 말도 ()가 있어요.”
 · 깜깜 아줌마가 땅굴차 앞에 달린 ()을 쫓어요.
 · “난 원래 ()이 심해서 냄새를 못 맡…….”
- (나) · 야구장도 ㉠난장판이 되었어요. 관중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어요.
 “괴물 지렁이가 나타났다!”
 순식간에 도시는 ㉡영망진창이 되어 버렸어요.

1) (가)의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일리 : 어떤 면에서 그런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치.
 ② 특종 : 어떤 특정한 신문사나 잡지사에서만 얻은 중요한 기사.
 ③ 전조등 : 기차나 자동차 따위의 앞에 단 등으로 앞을 비추는 데에 씀.
 ④ 축농증 : 몸속의 공간에 고름이 괴는 병으로 코결굴 점막의 염증을 말함.
 ⑤ 해부 : 생물체의 일부나 전부를 갈라 헤쳐 그 내부 구조와 각 부분 사이의 관련 및 병의 원인, 죽음의 원인 따위를 조사하는 일.

2) (나)의 밑줄 친 표현 ㉠~㉡과 다음 뜻을 알맞게 짝지으세요.

- ㉠ 여러 사람이 어지러이 뒤섞여 떠들어 대거나 뒤엉켜 뒤죽박죽이 된 곳. 또는 그런 상태.
 ㉡ 일이나 사물이 형클어져서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결판이 나거나 어수선한 상태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엄청 커다란 지렁이! / 어디로 대화를?

이름 :

💡 다음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트〉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군이 잔디를 옆으로 밀쳤어요. / “꼬맹아, 어른들끼리 중요한 이야기 하는 중이니까 저리 비켜!” / 갑자기 잔디가 연필을 내밀며 질문했어요.

“어린이법 1조 3항을 아십니까?” / “그게 뭔데?” / 장군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모든 어린이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 잔디가 큰 소리로 알려 줬어요.

장군이 벌컥 화를 냈어요. / “진실? 애들이 그런 거 알아서 뭐해!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 “하지만…….” / “시끄러! 시장님께서 고민 중이신데 방해되지않아!” / 장군이 잔디 입을 막아 버렸어요.

(나) 그때 잔디가 끼어들었어요. / “책에서 봤는데, 옛날 지구에 살던 곤충들은 아주 컸대요. 오웬들도 멸종하지 않은 고대 지렁이의 후손일지 몰라요. 그리고 지렁이들은 어둡고 축축한 곳을 좋아하니까, 햇볕이 비치는 땅 위를 싫어한다는 말도 사실일 거예요.” / 박사도 아는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 장군이 으박질렸어요.

“이 꼬맹이가 뭘 안다고 자꾸 끼어들어! 부관, 빨리 이 말썽쟁이를 끌어내!”

“잠깐, 이 아이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 시장님이 말했어요.

1) 윗글에서 ‘장군’은 어린이 기자인 ‘잔디’에게 함부로 대하며 말하고 있다. 이러한 ‘장군’의 말과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쓰시오.

⇨

2) (나)에서 ‘김세찬’의 별명이 ‘김 배불뚝이’가 된 이유를 찾아 쓰시오.

⇨

깜깜한 땅속 / 냄새가 난다!

이름 :

💡 다음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트〉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천천히 바닥 문이 열리더니, 잔디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시장님은 깜짝 놀랐어요. /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거니?”
 장군은 화가 나서 방방 뛰었어요.
 “이 고집불통 꼬맹이,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당장 돌아가지 못해!”
 그러나 잔디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 “저도 꼭 괴물을 보고 싶다고요!”
 시장님은 난처했어요. / “이런 땅속에서 혼자 돌아가라고 할 수도 없고……. 깜깜 아줌마,
 다시 도시에 갔다 올 수 있을까요?”
 “어렵겠는데요. 이미 많이 내려와 버려서요. 다시 갔다 오면 너무 늦어질 거예요.”

(나) “장군, 그게 무슨 소리요? 땅속 괴물의 냄새라도 난단 말ियो?”
 “네,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지독한 악취는 처음입니다! 분명 그 끔찍한 괴물의 악취일 겁
 니다!” / 그러고는 몸을 부르르 떨며 중얼거렸어요.
 “악취만으로도 이렇게 위협적이라니 정말 무서운 괴물이군…….”
 다들 냄새를 맡아 보려고 코를 킁킁댔어요. 하지만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잔디가 물었어요. / “나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장군님은 정말 냄새가 나세요?”

1) (가)~(나)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p>(가) : 바닥에 숨어있던 잔디가 나타나 자 □□□이 다시 □□□에 갔다 올 수 있냐고 물었고, □□□ □□□는 이미 □□□ 내려와서 어렵겠다고 말 했음.</p>	<p>↔</p>	<p>(나) : □□□은 땅속 괴물의 지독한 □□□를 맡고는 몸을 부르르 떨며 중 얼거렸고, 다른 사람들은 □□□를 킁킁 댔지만 아무 □□□도 나지 않았음.</p>
-------------------------------------------------------------------------------------------------------------------------------------------	----------	------------------------------------------------------------------------------------------------------------------------------

2) (가)에서 ‘잔디’가 바닥에서 나타나자 ‘괴물 조사단’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쓰시오.

⇨

멍청이들! / 무시무시한 대화

이름 :

💡 다음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토〉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난 말하는 쓰레기다. 생각도 할 수 있지.”

괴물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려는 듯,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너희 인간들도 말을 하잖아? 너희한테서 나왔으니까 나도 말쑤이야 할 수 있지, 뭐.” / “우리한테서 나왔다고요?” / 시장님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래, 너희가 쓰레기를 만들었잖아. 도시 옆에 산처럼 쌓아뒀던 쓰레기 더미, 기억 안 나? 난 거기서 태어났어.” / 잔디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특중이네요! 〈쓰레기 더미에서 생명이 태어나다!〉”

(나) “그러다 내 악취가 너무 지독해지니까, 어느 날 큰 구덩이를 파고 날 땅속에 파묻어 버리더군! 나는 엄청난 흙더미에 눌러졌어! 눌러질수록 내 악취는 더 지독해지고, 내 독은 더 끔찍해졌지! 정말 최악이었어!”

괴물은 조사단을 무섭게 노려봤어요. / “그때 내가 생각한 게 뭐지 알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 “바로 너희 인간들을 증오한다는 거야! 증오하고 저주해! 너희는 내가 땅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으니까 사라진 줄 알았지? 절대 아냐! 난 백만 년이고 천만 년이고 사라지지 않고 너희를 저주할 거야!”

1) 윗글에 나타난 ‘괴물’의 말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도시 옆에 산처럼 쌓아뒀던 □□□□에서 나왔고, □□과 □□도 할 수 있음.	➔	악취가 지독해지니까, □□□□를 파고 파묻어 버렸고, □□와 □□은 더 지독해지고 끔찍해졌음.	➔	그때 너희 □□□□을 □□□□하고 저주하게 되었고, 절대 사라지지 않고 인간들을 □□□□할 것임.
--------------------------------------------	---	------------------------------------------------------	---	--------------------------------------------------------

2) (가)에서 ‘괴물’이 말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쓰시오.

⇨

비밀 무기 / 간단한 문제군

이름 :

💡 다음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토〉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 “그게 뭐야? 빨리 말해 봐!”
 잔디는 괴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 “그러니까 괴물 아저씨는 억울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악취 나고 끔찍한 괴물 아저씨를 만들어 놓고, 아저씨만 미워하니까요.”
 괴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괴물 아저씨의 억울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리면 되지 않을까요?”
 잔디는 연필로 쓴 명함을 조심스럽게 괴물에게 내밀었어요.
 괴물은 더듬더듬 명함을 읽었어요. / “어린이들에게 진실을 알려 주는…… 담쟁이
 신문……?” / 괴물이 받아들자 명함은 금방 녹아 버렸어요. 하지만 똑똑한 괴물은 잔
 디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전부 이해했지요.

(나) 괴물이 말했어요. / “예전에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책 중에 《몽테크리스토 백작》
 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감옥에 갇힌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탈출하는 장면이 정말 감
 동적이었거든……. 나도 언젠가 이 땅속을 벗어난다면, 그래서 나에게도 멋진 이름이
 생긴다면, 그 이름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
 “우아, 멋져요, 몽테크리스토!” / 잔디가 손뼉을 쳤어요.

1) (가)에서 ‘잔디’가 ‘괴물’에게 제안한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알맞은 말을 쓰시오.

괴물을 가리키며 □□□이 악취 나 고 □□□ 괴물 아저씨를 만들어 놓 고, 아저씨만 □□□□□ 괴물 아저 씨는 괴물 아저씨는 □□□□□ 것이냐고 물었음	↔	괴물 아저씨의 □□□□□ 를 □□□에게 알리면 된다고 말하며 □□□로 쓴 담쟁이 신문의 □□□을 내 밀었고, 괴물이 그것을 받아들자 금방 녹아 버렸음
--------------------------------------------------------------------------------------------------	---	-------------------------------------------------------------------------------------------------

2) (나)에서 ‘괴물’이 자신의 이름을 ‘몽테크리스토’라고 붙인 이유를 쓰시오.

↳

영망진창 도시! / 괴물 산책

이름 :

💡 다음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트〉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장님이 말했어요. / “물론 몽테크리스트 씨의 냄새가 견디기 힘든 것은 맞아요. 하지만 몽테크리스트 씨는 우리가 만들고 버린 쓰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도시가 주는 이로움을 같이 누릴 권리도 있지만, 도시에 생긴 문제를 같이 책임질 의무도 있잖아요.” /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을 한 시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시장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몇 년이 지나자, 몽테크리스트는 작은 곰만 해졌어요. 여전히 초콜릿처럼 까만색이었지만, 이제 악취는 거의 나지 않았어요. 대신 열은 흙냄새가 날 뿐이었죠. 만져도 녹아내리는 일은 없었어요. 끈적이지는 했지만 맑고 투명한 액체가 조금 묻어나올 뿐이었죠. 달팽이를 만졌을 때처럼요.

그래서 몽테크리스트는 다시 자기 손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몽테크리스트는 다른 어떤 일보다 기뻐했지요. / 시민들은 조금씩 몽테크리스트와의 산책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몽테크리스트가 생각보다 유머 감각이 있고, 아는 것도 많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누구나 몽테크리스트와의 대화를 즐겨워했어요.

1) (가)에서 ‘시장님’이 한 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나)에 나타난 ‘몽테크리스트’의 변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

2) (가)에서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찾아 쓰시오.

↳

독해력/표현력 쑥쑥 키우기

이름 :

💡 다음은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트>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그림이다. 각각의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쓰고,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쓰시오.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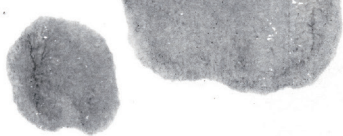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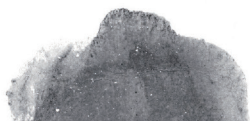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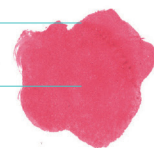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2 horizontal teal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A series of 20 horizontal blue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ruled area for writing.



정답과 해설

3쪽	<p>(예시답안) 1) 땅속에서 살고 있는 괴물인 몽테크리스토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다. 2) 카메라를 든 기자, 광부와 박사, 확성기를 든 할아버지, 탱크에 탄 장군 등이 땀을 흘리고 있고, 그 뒤에 도시의 땅속에서 올라온 검은 괴물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3) ① 엄청 커다란 지렁이들이 나타났고, 끔찍한 괴물을 피해 도망쳤다고 함 ② 침착한 시장님, 힘센 장군과 부하, 아는 척쟁이 박사, 최고의 광부 감감 아줌마, 어린이 기자인 잔디 등</p>
4쪽	<p>1) ⑤, ④, ③, ①, ② 2) ㉠ : 선제공격, ㉡ : 막무가내, ㉢ : 문젯거리</p>
5쪽	<p>1) ②, ⑤, ①, ③, ④ 2) ㉠ : ㉡, ㉢ : ㉣</p>
6쪽	<p>1) (예시답안) 장군은 잔디를 옆으로 밀치며 비키라고 했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잔디에게 벌컥 화를 내며 입을 막았고, 자꾸 끼어든다며 끌어내라고 말했다. 장군이 어린이인 잔디에게 언어폭력을 하고, 입을 막는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멸종하지 않은 고대 지렁이의 후손</p>
7쪽	<p>1) (가) 시장님, 도시, 감감 아줌마, 많이 / (나) 장군, 악취, 코, 냄새 2) 시장님은 깜짝 놀랐고, 장군은 화가 나서 방방 뛰었음</p>
8쪽	<p>1) 쓰레기 더미, 말, 생각 / 구덩이, 악취, 독 / 인간들, 중요, 저주 2) 괴물이 말을 하는 인간들이 만든 쓰레기 더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p>
9쪽	<p>1) 사람들, 끔찍한, 미워하니까, 억울한 / 억울한 이야기, 사람들, 연필, 명함 2) 감옥에 갇힌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탈출하는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어서 땅속을 벗어나 이름이 생긴다면, '몽테크리스토'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다고 생각해서</p>
10쪽	<p>1) (예시답안) 우리가 만들고 버린 쓰레기인 몽테크리스토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시장님의 말에 못마땅한 얼굴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몽테크리스토가 작은 곰만 해져서 악취가 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책을 읽고, 시민들과 즐겁게 대화해서 다행이다.</p>
11쪽	<p>1) ① 괴물 몽테크리스토 : 쓰레기 더미에서 나왔으며 독이 있고 악취가 지독함 ② 잔디 : 담쟁이 신문의 어린이 기자이며 괴물과 대화하려고 함 ③ 시장님 : 도시에 괴물이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 ④ 장군 :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핵폭탄까지 사용하려고 함 ⑤ 아는 척쟁이 박사 :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괴물을 해부하려고 함 ⑥ 감감 아줌마 : 도시 최고의 광부이며 괴물 조사단을 땅속으로 데려다줌</p>

응진 주니어

값 9,000원



9 788901 204031



74800

ISBN 978-89-01-20403-1
ISBN 978-89-01-05987-7(세트)



KC 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